

호남선 KTX 2014년 완전 개통 대비

‘수도권 이탈’ 차단 전담조직 뜬다

市, 광주 발전 전략 올 연말까지 수립키로

오는 2014년 말로 예정된 호남선 KTX 완전 개통을 앞두고 새로운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이미 KTX가 개통된 대구와 부산의 경우 제조업과 관광·숙박·음식업, 인구가동 및 부동산 가격 추이 등 지역경제에 중요한 변수들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관광·숙박·유통·의료·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과 공무원 5명 등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KTX 지역발전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의 원탁회의는 민선5기들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기구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KTX개통에 따른 타지역 파급효과 및 우리지역 대응방안’이라는 자료에서 부산과 대구 등 KTX개통 지역의 경제가 통계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2004년 KTX가 개통한 대구시의 경우 철도수송 분담율이 2003년 12%에서 2007년엔 60%로 급등한 반면 항공수송 분담율은 2003년 24%에서 2007년 0.4%로 급감하는 등 교통체계가 철도수송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됐다.

하지만, 2004년을 전후해 제조업체 숫자가 2~3%가량 감소했으며, 도·소매업체 숫자도 연평균 -1.8%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KTX개통 직후인 2004~

2006년에는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지금까지도 개통 전보다 인구유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구지역 관광지 방문객 수는 개통 전에 비해 4%가량 늘었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의 매출이 66%이상 늘고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매출도 9.6%가 증가했다. 지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KTX가 개통한 이후 부산지역민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비중은 개통전 17.2%에서 개통후 26.0%로 평균 8.8%P가 증가한 반면 서울지역민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비중은 개통전 1.2%에서 개통후 3.4%로 2%P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6개 KTX정차지역 주민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비율도 각각 개통 전 9.9%와 6.0%에서 개통 후 16.2%와 9.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산에 대한 서울의 영향력이 KTX개통 후 더욱 확

대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결과다.

이날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호남선 KTX개통 후 상당 부분에서 광주에도 대구·부산 등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광주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긍정적인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적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감안, 환경적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KTX개통 등 새로운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다음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 또 광주발전연구원에 ‘KTX개통대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등 연말까지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원탁회의를 수시로 열고, 워크숍과 세미나,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각계의 견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홍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봄맛이 가지치기 봄은 농부의 손길을 부른다. 우수(雨水)를 하루 앞둔 18일 장성군 남면의 배 과수원에서 농부들이 묵은 가지를 잘라내고 꽃눈을 슈느리 분주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분당乙 민주 손학규 대표 차출론

한나라 ‘총리 벨트’ 맞붙
孫 ‘흔들기 아니냐’ 불쾌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손학규 대표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경남 김해 을,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서 극심한 후보난을 겪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같은 지역에서 총리급 벨트(한승수, 김태호, 정운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등 거물급 인사의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손 대표가 ‘구원투수’로 수도권인 성남 분당 을에 출마해야 4·27 재보궐 선거에서 주도권을 쥌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손 대표 측에서는 이 같은 ‘차출론’을 일축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중도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에 지역구를 분당으로 옮겨 패배할 경우, 차기 대선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등 정치적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의 선장인 대표를 일선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전체적인 재보선 전두지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손 대표 진영에서는 ‘차출론’이 민주당 비주류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손 대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비주류 진영에서는 “대선을 고려해 이번 보궐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당의 대표로서 뜻밖의 태도가 아니냐”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대선을 고려해 차기 총선에서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화창한 우수

광주·전남 북 맑고 포근

대동강도 풀린다는 우수(雨水)인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19일과 20일 광주와 전남·북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1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18일 예보했다.

아침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따뜻하고 맑은 날씨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0.5~1.5m로 비교적 낮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중·고생 ‘F’ 받으면 졸업 못한다

교육개발원, 2014년부터 내신 6단계 절대평가 전환

현행 상대 평가 방식의 중·고교 내신제도가 2014학년도부터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절대평가 6단계에는 학업 성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F’ 단계가 포함돼 F점수를 받은 교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한국교육개발원 다산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하고 교

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대학입학처 관계자, 일선고교 교사,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시안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의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2014년 중학생이 되면 내신이 현행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방식에서 역시 A-B-C-D-E-F 6단계로 매겨진다.

중고교 모두 특정 교과목에서 F단계를 받게 되면 계절학기나 방과 후 수강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과목을 재이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개발원은 이처럼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성적 부풀리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성적표 기재 방식은

석차, 재적수 및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을 적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시안은 아직은 정책 연구진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연구진의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으로는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희뉴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광주 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소방관 ‘물과의 전쟁’ ▶ 3면 ‘자문형 랩’ 열풍 ▶ 4면 색소폰 배우기 ▶ 5면 Books ▶ 8·9면 주말 볼만한 영화 ▶ 10면 3·1절 마라톤 “우리도 함께 뛰다” ▶ 14면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I LOVE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과도한 업무, 무한 경쟁압박,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잦은 과음으로 지치고 힘든 나의 간- 이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성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간장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특히 40대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간장질환자의 60~70%가 바이리시스성 간염과 관련되어 있으나, 알코올이나 약물, 비만 등도 간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콜성 간장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국제약품이 함께합니다.

손상된 **간세포**와 **간조직**을 재생하는 - **Carduus Marianus Extract**가 함유된 **만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 보조 치료제

간장보호기능 생약성분 및 비타민 복합제

리버비타 연질 캡슐

*기타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제약품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3-2, 2층/아케팅 TEL: 031-781-908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광고심의필: 1091-0300